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53>

JCCT 2017-11-6

## 전공계열에 따른 개인의 성격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Creative Behavior according to Major in University

장하수\*

Ha-Soo Jang\*

**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성격 5요인)이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대학에서 특수 전공으로 인식되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과 비예체능계열 대학생들 간의 개인 특성이 창의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C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체능계열 150명, 비예체능계열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했으며, 이중 유효 설문지 275부(91.7%)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성격 5요인 중 신경성(정서안정성)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전공을 예체능 계열과 비예체능 계열로 세분화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한 결과, 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비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외향성과 개방성만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에 따른 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어** : 대학생 Big 5 성격 검사, 성격 5요인, 창의적 행동, 창의성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eff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big five personality) on creative behavior. In particular,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ho are perceived as unique majors in university and students who are in non-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ffect the creative behavior. To perform thi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0 university students i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nd 150 non-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in C University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275 copies (91.7%) of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among them.

As a result, extroversion, openness, Friendliness, and sincerity were found to affect creative behaviors, excluding neuroticism (emotional stability) among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by departmentalizing the majors of respondents as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nd non-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case of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extroversion, openness, friendliness affected the creative behavior, and in the case of non-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only extroversion and openness influenced creative behavior. This difference can be understood as the difference of habits according to major, and it has been proved that it is also similar to previous research results.

**Key words** : Big 5 personality test for student, big five personality, creative behavior, creativity

\*정회원,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접수일: 2017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17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7년 11월 5일

Received: 6 October, 2017 / Revised: 28 October, 2017

Accepted: 5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kdhwolf@gmail.com

Dept. of Cultural Studies, Chosun University

## I. 서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창의성은 1950년 Guilford(1950) 연구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1]. 창의성 연구의 주된 영역은 창의성 발현의 주체, 창의성 평가의 대상, 창의성 발현의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창의성 연구의 질적·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는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으나,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창의성의 개념 내지는 본질을 정의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또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창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창의성이 특정 영역 내지는 직업군에서만 발현되는 특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에 관한 것이다.

창의성의 영역특수성과 영역일반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창의성이 무엇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새롭고, 질적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3]이라 했을 때, 새롭다는 것은 어느 정도이며, 질적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느정도인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4].

위와 같은 창의성의 영역특수성과 영역일반성의 논쟁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창의적인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차이를 내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창의성이 경쟁력의 근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특성이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특수 전공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체능계열의 대학생들과 비예체능계열 대학생들 간에 개인특성에 따른 창의적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개인의 성격

인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성격이다[5]. 자기보고 방식의 성격검사는 창의적 성격을 측정하는데 측정이 빠르고, 채점하기 쉽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6].

사람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으로, 성격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이 개인의 성격구조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7].

성격 5요인은 외향성, 신경성(정서 안정성), 개방성, 친화성(호의성), 성실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적이며, 경험적인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개방성은 창의성과 가장 밀접한 성격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외향성 역시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반면, 성실성과 친화성, 신경성(정서 안정성)은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9].

표 1. 성격의 5요인[10]

Table 1. Big Five personality traits[10]

요인	특징
외향성	외향적이고 사교적임
신경성/정서 안정성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또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함)
개방성	지적이며, 경험적인 것에 호기심을 가짐
친화성/호의성	호의적이며 성품이 좋음
성실성	절제가 있고, 규칙을 잘 지키며 순수함

### 2. 창의적 행동

잠재 능력은 행동으로 표출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창의성은 일정한 결과로 나타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1]. 즉 창의성은 창의적 행동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며, 창의적 행동은 창의성을 예측하는 변인임과 동시에 결과변인의 특성을 갖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2].

이러한 창의적 행동은 단일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창의적 행동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13].

명을 제외한 총 275(예체능계열 142명, 비예체능계열 133명)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C대학의 예체능계열 대학생 150명과 비예체능계열 대학생 150명, 총 300명이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2017년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28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300명 중 불성실 응답자 25

#### 2. 설문구성 및 분석방법

모두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의 경우 Costa and McCrae가 5가지 성격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14]를 참조하였으며, 창의적 행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Runco's Ideational Behavior Scale(RIBS)를 사용하였다[15].

회수된 설문지는 첫째, 기초자료분석 및 기초통계분

표 2.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Table 2. Conclusion of analysis on primary factor and reliability

개념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Cronbach $\alpha$
외향성	외향성1	.110	.017	.656	-.118	.268	.287	0.773
	외향성3	.113	.166	.791	.047	.119	-.103	
	외향성4	.165	.041	.828	-.128	.014	.207	
	외향성5	.166	-.056	.671	.027	.006	.070	
신경성/정서 안정성	신경성2	.039	.106	.186	.644	-.161	-.065	0.678
	신경성3	.018	-.049	-.082	.839	.015	.036	
	신경성4	-.026	-.089	-.147	.713	.273	.198	
	신경성6	-.068	.039	-.106	.630	-.107	-.327	
개방성	개방성2	.283	.018	.114	.028	.781	-.103	0.626
	개방성3	.195	.002	.208	-.059	.711	.282	
친화성	친화성1	.107	-.106	.153	.023	-.038	.691	0.612
	친화성2	.196	.203	.106	-.091	.154	.700	
성실성	성실성2	.063	.763	.048	.143	-.142	-.056	0.819
	성실성3	.024	.820	.016	-.079	-.073	.164	
	성실성4	.267	.644	.037	-.080	.287	-.056	
	성실성5	.022	.745	.037	-.019	-.055	-.054	
	성실성6	.173	.766	.016	.035	.162	.051	
창의적 행동	창의1	.709	-.063	.079	-.013	.084	.167	0.896
	창의2	.817	.121	.182	.099	.118	.051	
	창의3	.828	.036	.078	-.049	.048	.064	
	창의4	.817	.161	.065	-.024	.228	.072	
	창의5	.849	.106	.106	-.083	.151	.045	
	창의6	.684	.242	.195	.057	-.005	.056	
고유치		4.072	3.035	2.462	2.128	1.573	1.433	
설명분산(%)		17.706	13.196	10.703	9.254	6.838	6.231	
누적분산(%)		17.706	30.901	41.605	50.859	57.697	63.927	

석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제거하였으며, 둘째,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크롬바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에 대한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6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의 경우는 Cronbach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다항목적도의 내적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가 전공에 따라 상이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첫째, 전공과 상관없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다음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경성(정서 안정성)을 제외하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중 예체능 계열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만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성(정서 안정성), 친화성은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예체능 계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영향력 검증 결과는 외향성, 개방성만 창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뿐, 신경성(정서 안정성), 친화성, 성실성은 통계적으로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모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향성과 개방성은 전공에 상관없이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실성의 경우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전공이 갖는 특성으로 인한 오랜 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체능이 비예체능에 비해 더 자유롭고, 기존 관습을 파괴하는 것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의 성실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창의적인 예술성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노력의 결과물이고, 이를 위한 노력의 활동들이 늦으면 고등학교, 이르면 초등학교부터 지속되어온 습관의 결과물이라 했을 때, 성실성과 창의적 행동과의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의 연구 결과는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표 3. 성격 5요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전체)  
Table 3.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n Creative Behavior(totality)

모형	창의적행동(종속변수)				유의확률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eta$	표준오차			
외향성	.165	.053	.177	3.115	.002**
신경성/정서안정성	.020	.056	.019	.361	.718
개방성	.315	.057	.305	5.504	.000***
친화성	.149	.059	.142	2.543	.012*
성실성	.207	.053	.205	3.930	.000***

R-Square=.287, Adj R-Square=.274, F=21.698,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성격 5요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예체능)  
 Table 4.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n Creative Behavior(artistic)

모형	창의적행동(종속변수)				유의확률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eta$	표준오차	$\beta$		
외향성	.195	.075	.211	2.583	.011*
신경성/정서안정성	.030	.075	.029	.402	.688
개방성	.314	.082	.299	3.839	.000***
친화성	.165	.085	.148	1.940	.054
성실성	.209	.079	.192	2.639	.009**

R-Square=.308, Adj R-Square=.283, F=12.133,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성격 5요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비예체능)  
 Table 5.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n Creative Behavior(non-artistic)

모형	창의적행동(종속변수)				유의확률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eta$	표준오차	$\beta$		
외향성	.151	.070	.178	2.142	.034
신경성/정서안정성	.071	.080	.068	.887	.377
개방성	.271	.076	.294	3.575	.000
친화성	.137	.076	.152	1.794	.075
성실성	.126	.068	.145	1.870	.064

R-Square=.254, Adj R-Square=.225, F=8.648, Sig=.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5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성격 5요인 중 신경성(정서안정성)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전공을 예체능 계열과 비예체능 계열로 세분화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한 결과, 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비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외향성과 개방성만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에 따른 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창의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선행 변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격 5요인 외에도 학습, 인지, 문제해결전략, 동기, 지능, 태도, 신념, 모방, 집단역학 등[16]이 정성적 연구결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변수들과 창의성 내지는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Byung-Gee. Park and Hyun-Suk.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port from and Integrative Creativ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20, No.1, p.156, 2006.
- [2] Seung-Eun. Choi, Hye-Mi. Eom, Hyeon-Sun. Shin, Bong-Sun. Heo, Yun-Ji. Kim and Hyo-Geun. Kim, *Creative and Creative Management*, Sigma Insight, p.44, 2014.
- [3] Sternberg. R. J, Kaufman, J. C and Pretz, J. E, *The Creativity Conundrum*, Psychology Press, New York, p.1, 2002.
- [4] Kaufman. J. C and Baer. J, in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 Edited Sternberg. Robert. J, Grigorenko. Elena, L. and Singer. Jerome. 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15, 2004.
- [5] Jea-Yang. Cho, "Impact of Leader's Personality on Creativity of Hotel Front Officer and Job Satisfactory",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No 4, p.457, 2014.
- [6] Kaufman. J. C, Jonathan. A. P and Bear. J. *Essentials of Creativity Assessment*, Wiley & Sons, 2008.
- [7] Mi-Young. Kim, *The Relationship among Big Five Personality Traits, Leader-Member Exchange(LMX),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for Executive Secretaries in Large Korean Firms*, Ph. 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37, 2015.
- [8] Kaufman. J. C, Jonathan. A. P and Bear. J. *Essentials of Creativity Assessment*, Wiley & Sons, 2008.
- [9] Jea-Yang. Cho, "Impact of Leader's Personality on Creativity of Hotel Front Officer and Job Satisfactory",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No 4, p.460, 2014.
- [10] Kaufman. J. C, Jonathan. A. P and Bear. J. *Essentials of Creativity Assessment*, Wiley & Sons, 2008.
- [11] Runco. M. A, in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 Edited Sternberg. Robert. J, Grigorenko. Elena, L. and Singer. Jerome. 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50, 2004.
- [12] Hwa-Ja. Lee,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creativ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people in advertising industry*, Ph. 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2.
- [13] Byung-Hee. Lee, *Confirmation of the Domain-General Structure Model of Creative Behavior*, Ph. D.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pp.30-31, 2008.
- [14] Costa. P. T, McCrae. R. R and Kay, G. G, "Persons, Places, and Personality : Career Assessment using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3, No.2, pp.123-139, 1995
- [15] Runco's. M. A, Plucker. J. A and Lim. W,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tegrity of a Measure of Ideational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3-4, No.13, pp.393-400, 2001.
- [16] Simonton. D. K, *Contemporary Psychology*, Vol.39, No.1, pp.12-13, 1994.